

### 학술진흥재단 98년부터 학술지 발간 지원 사업

## 교계 학술단체 '등재후보' 신청 안하나 못하나



교계 주요 학술지. 이 중에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술지 등재 후보'로 지정된 학술지는 없다.

국내 최대의 학술 지원단체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 98년부터 '학술지 등재 후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교 관련 학회는 농장 대응을 하고 있어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교계 학술지는 <불교학보>, <한국불교학>, <가산불교>, <인도철학>, <백련불교논집> 등 26종인데 반해, '학술지 등재 후보'로 지정된 교계 학술지는 전무하다. 지난 3년간 진흥재단은 360여 종의 학술지를 '등재 후보'로 지정했다.

'학술지 등재 후보' 사업은 학술지에 대한 질 평가와 연구자의 학술연구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진흥재단의 판단에 따라 시행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학맥과 친분에 따라 논문을 신거나 검정되지 않는 초청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지 발간의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사업에 대해 학계는 "투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학술지의 질을 높이고 학자의 연구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반응이다. 학계는 지난 3년 간 700여 종의 학술지를 '등재 후보'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등재 여부에 따라, 진흥재단으로부터 300만~400만원의 발간비를 지원 받고, 학술지에 우수한 문헌을 실는 길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계 26종의 학술지 가운데 진흥재단의 '학술지 등재 후보'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단순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더욱이 3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학회가 지난해 <한국불교학>을 진흥재단의 등재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일은 우려를 넘어 충격으로 다가서기에 충분하다.

현재 보조사상연구원, 성철사상연구원 등 수 곳에서 '등재 후보'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진흥재단의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 등재 여부를 낙관할 수도 없다.

'학술지 등재 후보'를 지정하는 평가는 '논문 게재율', '논문 D/B 운영', '가독률'의 국제성' 등 12개 항목의 개관적 평가와 '논문의 질 및 독창성', '학술지의 전문성' 등 9개 항목의 주관적 평가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불교학계 관련자들은 "등재 후보에서 제외되면, 동국대 관련 학자 이외에 우수한 학자의 글이 교계 학술지에 실리기 힘들 것"에서부터 "불교 관련 학회의 미래가 달랐다"는 인식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관련 학회나 연구 단체에서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등재 후보'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결국 진흥재단에 학술지를 등재하는 문제는, 학회나 연구 단체는 물론 학자의 연구업적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학회의 운영 및 관리·회원 모집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불교학계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x@buddhapia.com)

###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 고려상인 유숙지 기념비 세위

### 판교진의 고려정관

해주스님 <동국대 교수>

산동성 일대의 불교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하여 조영복 교수를 단장으로 한 우리 중국불교학사단 일행은 12월 23일, 서울에서 비행기로 약 한시간 반만에 청도 공항에 도착하여 이른날 교주(膠州)로 갔다. 그 다음 날(12월 25일) '교주시 중한 경제문화교류 세미나'와 중한 경제문화 유적지 기념비인 '고려정관(高麗亭館)' 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 비 제막 김준업 교수 발의

교주는 판교진이라 불렀는데 복속시기부터 대외통상무역항으로서 해상운수와 대외무역이 발달한 곳이었다. 최치원이 거쳐가기도 했다는 이곳 판교진에 고려정관이 세워지기로 하고 우리 일행의 답사일에 맞추어 비 제막식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고려정관 비 제막식은 교주시 이호시장과 한국영사관 급명목 총영사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해 행해졌는데, 처음 발의한 것은 전 교대 총장 김준업 박사에 의해서이다. 김 박사가 교주의 불교학자 정문광 선생과 함께 지난 5월에 공동으로 현지실사를 마치고 고려정관의 유적지가 지금 교주시의 운서하북측 성의교통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후 교주시 국제상회가 청도대학 한중문화연구중심 주임 박영희 박사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시정 부에 보고를 드려 지금의 유적지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고려정관이 세워진 판교진은 <교주시 지대사기>에 의하면 "620년(당 무덕3년)에 고밀현을 설립하고 623년(무덕 6년)에 교서현을 없애 고밀현에 병입시켜 판교진을 설립하였다. 지금의 교주 승리고 서북처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 지리에 세워진 고려정관 비는 앞면에는 한중경제문화교류 유적지에 교주시 연합정부가 고려정관을 세운다는 내용의 비문이 있고, 뒷면에는 다음과 같이 한글



로 새겨져 있다. "복속시기 중국으로 항해하여 와서 교주(구 밀주 판교진)에 상륙한 외국상인들 중에는 고려(서기 918~1392)의 상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들이 장사를 하면서 유숙하고 모였던 장소를 고려정관이라고 한다. 당시 교주와 고려간 경제 문화교류는 아주 빈번하였다. 판교진은 통상항구로서 중국 조정은 이곳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대외무역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원종 8년(1085년)에는 고려왕조 문종(왕위)의 4남 의천대사(대각국사, 1055~1101)가 불법을 구하고서 고려의 개성에서 바다를 건너 중국에 와서 판교진 부두로 상륙하여 잠시 머문 후 변경(지금의 개봉)으로 갔다. 그 후 의천대사는 1086년 6월까지 14개월 동안 송나라 조정의

문헌을 구해와서 판교진에 보관하였다. 판교진에 보관한 문헌은 통상항구로서 중국 조정은 이곳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대외무역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원종 8년(1085년)에는 고려왕조 문종(왕위)의 4남 의천대사(대각국사, 1055~1101)가 불법을 구하고서 고려의 개성에서 바다를 건너 중국에 와서 판교진 부두로 상륙하여 잠시 머문 후 변경(지금의 개봉)으로 갔다. 그 후 의천대사는 1086년 6월까지 14개월 동안 송나라 조정의



고려정관기념비 제막식 후 촬영한 기념사진.

보호 하에 각지의 고승을 방문하여 양국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한 중 교류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2000년 12월 비를 세움.

### 의천대사 불법 구해 입승

대각국사 의천이 밀주 판교진에 도착한 것은 1085년 5월 갑오일이었다. 고려의 정주(지금의 풍덕)에서 4월 초파일날 송나라 상선을 타고 떠난 지 약 한달 후였다. 의천은 밀주에 도착하자 입승한 뜻을 담은 서신을 밀주지사인 송나라 조정에 올려 도움을 청했다. 송 황제는 고려왕의 아들이 유학은 데 대해 크게 기뻐하고 안내인을 보내고 양걸을 곁에 두어 의천의 구명행을 돕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원법사를 비롯하여 승려 도속 50여인을 만나 법당을 나누었다. 의천은 많은 장소를 구하여 일찍부터 뜻해왔던 속장경 강행을 도모할 수 있었고, 천태종을 개창하여 한국에 천태 교학이 꽃피게 하였다. 그 내용이 고려정관의 비에 담겨있는 것이다.

## 서산 마애삼존불 보호각 철거 '논란'

### 충청남도가 최근 서산 마애삼존불 보호각에 대한 철거 의사를 밝혀 학계와 문화재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충청남도는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국보 제48호 서산 마애삼존불에 설치된 보호각이 자연광을 차단해 햇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달리 보이는 삼존불의 미소를 볼 수 없어 철거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청에 이를 묻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호각은 지난 62년 마애삼존불이 국보로 지정된 뒤 풍화작용 등에 의한 불상 훼손을 막기 위해 3평 크기로 지어졌다. 충청남도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위



서산 마애삼존불.

덕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박종국 교수는 "서산 마애삼존불은 애초 채색 석불이었다"며 "채색이 벗겨진 지금, 자연광이건 인공조명이건 석불의 미소를 자세히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당시 채색 기법으로 원형을 복원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각이 철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종욱 기자

## "문화재 관리행정 형식적"

최성락 교수 "시·군 문화재 담당요원 태부족"

문화 유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확충 등 행정기관과 학계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성락(목포대 고고인류학·사건) 교수는 최근 펴낸 <고대 유적 보존 및 활용 방안> (무릎 출판사)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문화 유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확충 등 행정기관과 학계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성락(목포대 고고인류학·사건) 교수는 최근 펴낸 <고대 유적 보존 및 활용 방안> (무릎 출판사)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일선 시·군의 문화관광계에 문화재 담당요원이 배치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며, 읍·면·동 하부조직에서는 총무계에서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문화재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도 형편은 비슷하다. 시·도의 경우 2, 3명의 문화재 담당요원이 배치된 경우를 포함하면 유·무형 문화재의 조사에서부터 지정·관리·복원·방제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최 교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관리 업무 특성상 문화재 전문가를 전문위원이나 학예연구사로 채용

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의 행정보조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문화재 정비와 보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문화재 복원과 정비는 문화재청 보수과에서 설계지침을 작성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문위원에 의해 간단한 조사가 진행된 뒤 외형과 규모 등이 조절되고 설계면적요인 발생시 문화재 보수업체에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실제로는 정비, 복원을 위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일반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실무는 담당하고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학계나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 '백련불교논집' 10호 발간

성철선사상연구원(성철선사상연구원)은 '백련불교논집' 제1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중편 조동유위> 소고, '당송 선종어록의 언어 연구 현황과 과제' 등 연구비 지원 논문 7편과 '선종과 주자학의 계보화에 나타난 공부론의 경계', '수행적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 등 백련아카데미 발표 논문 3편을 수록했다. 02)744-1541

###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보조사상연구원)은 27일 2시 30분 법륜사 불일문화회관에서 35차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지눌의 돈오(頓漸)측과 이사(理事)측의 긴장과 타락'을 주제로 한 고영섭(동국대 강사)의 논문 발표로 진행된다. 고 박사는 논문에서 선과 화엄의 관점에서 지눌 스님의 주요 전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02)733-5315

## 法華三部經講院

### ▶ 男·女 통신반 募集 ◀

1. 募集期間 ■ 전기: 1월 5일 ~ 2월 15일 (기간연수)
2. 募集課程 ■ 佛經漢字 한문 교육과
3. 入學資格 ■ 불교 최고의 경전을 연구 하고자 하는 자  
■ 불교 교육자로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教育科目 ■ 무량의경(漢文本)  
■ 묘법연화경(漢文本)  
■ 관·보현보살 행법경(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5. 教育期間 ■ 3년(6학기) 통신반·출강반 동일
6.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1회 대구 강의실에서 특강
7. 卒業惠擇 ■ 수확증서 수여  
■ 교직자 자격증 수여(심사후)  
■ 법화수행교육원 개원시 적극 지원(심사후)  
■ 평생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심사후)



지혜의 입화 안내서는 열서로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우편번호: 701-600)

法華三部經講院  
053-952-8711 / 017-501-8711

## 제 1기 禪友募集

마음 길들이는 집, 마음 다스리는 곳, 위빠싸나(如來禪) 전문 수행처.

근본불교진흥원 **여래선원**  
Buddhaya Meditation Center  
서울·장남구 신사동 511-5 02)512-4422 Fax : 02)512-4406  
대구·수성구 방어동 292-15 053)744-9009  
미얀마·Seikantha New-Dagon Yangon Myanmar

▷ 참고 저서 - 위빠싸나 33일 (우리출판사)  
그대들도 내처럼 이 길로 오라(민족사)  
민승도 내려 내려 (출판예정)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자신만을 의지하여 험 없이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유향)

서울	대구
에비기초반 매주 화, 목 - 오전 11:00-12:30	에비기초반 매주 화, 목 - 오전 11:00-12:30
일반수행반 매주 목, 수, 금 - 오전 10:30-12:30, 저녁 7:30-9:30	일반수행반 매주 목, 수, 금 - 오전 10:30-12:30, 저녁 7:30-9:30
도요정진반 매주 토 - 오후 5:00-9:00(경전 강설 1시간)	도요정진반 매주 토 - 오후 5:00-9:00(경전 강설 1시간)
심학정진반 매주 화, 목 - 저녁 7:00-9:30	심학정진반 매주 화, 목 - 저녁 7:00-9:30
대구	대구
대일정진반 매월 셋째 토요일 - 저녁 8:00-익일 03:30	대일정진반 매월 셋째 토요일 - 저녁 8:00-익일 03:30

오직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선우들만을 위한 시민선방입니다. 우선 성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려는 선우들만 1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 교재, 회비 무료, 단, 천도제, 일반제사 사절 >  
法山 뚫다짜야 습사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혜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 승복·법복·누비·미퀵판매인니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심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혜에 의한 승복을 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등록·출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에도 바깥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깥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권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에 가서 봉사 보시하면 토틀을 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계 팔난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품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심 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버락 맞은 대추나무)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버락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기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을 주는 보물입니다.

사전에 소개된 진품 벽조목은 수백년 묵은 대목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년 7월 하순경 버락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것입니다.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거리,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주, 영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임사,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등, 호신부 패물, 부처, 재앙, 액운, 성불,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집거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 구입하신 분은 점안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홍련입 공덕하 법사  
02)909-1360 · 011-9778-2803